

국별 리포트

폴란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312천km ²	G D P	4,298억 달러(2009년도)
인구	38.07 백만명(2009년도)	1 인 당 GDP	11,316 달러(2009년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Zloty (PLN)
대외정책	유로존 가입 추진	환율(달러당)	3.12(2009년도)

-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국가 가운데 최대의 경제권 및 인구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헝가리, 체코 등과 함께 1996년 OECD, 1999년 NATO 가입에 이어 2004년 5월에는 EU에 가입함.
- 정치적으로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총선에서 법과 정의당(PiS 당)이 승리하였으나, 2006년 11월 지방선거 이후 당시 제1야당인 시민강령당(PO당)의 승리로 연정 결속력이 약화됨. 2007년 9월 연정붕괴와 조기총선 합의에 따라 실시된 조기총선(2007.10)에서 PO당이 승리(정권 교체)함으로써 농민당과 연정을 구성함. 2009년 6월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 PO당이 25석(전체의 44.4%)을 확보하여 집권여당이 압승하였고 2010년 7월 대선에서 PO당 소속의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됨.
- 2004년 EU 가입 이후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친 EU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 EU 관계가 호전되고 있음. 2008년 하반기 이후 동유럽 경제권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IMF로부터 예방적 차원의 자금차입 등으로 국제신인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제성장률	6.2	6.8	5.0	1.7	2.7
재정수지/GDP	-3.6	-1.9	-3.7	-7.1	-7.3
소비자물가상승률	1.0	2.5	4.2	3.5	2.3

자료: IMF.

□ 2009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크게 둔화

- 폴란드 경제는 2005년 이전에는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경제체제가 전환되는 과정의 부작용으로 경제성장률이 5%대에 못 미치는 부진(1992~2001년 평균 4.6% 성장)을 면치 못하였음.
-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유로존의 경기호조로 인한 수출 증대 및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에는 연평균 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폴란드 경제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주변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타격을 비교적 덜 받았으며, 2009년에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률(1.7%)을 기록함(2010년 2.7% 전망).
- 이는 낮은 대외무역 의존도, 민간부문의 채무상환부담 경감, 소득세 감면 및 EU 기금 수혜를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에 기인함.

□ 재정수지는 2009년 이후 적자폭 확대로 악화추세

- 폴란드 정부는 2009년 재정수지 적자목표치를 182억 즈워티(55억 달러 상당)로 설정하여 전년(246억 즈워티)에 비해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감축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2009년 상반기에는 기업경기가 크게 둔화되었고, 특히 개인소득세 인하조치와 산업생산(금속, 자동차 및 건설부문 등) 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폴란드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를 272억 즈워티(87억 달러 상당)로 상향조정함.
- 200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경기침체 지속, 사회보장기금(ZUS) 지출 확대 등으로 전년의 3.7%에서 7.1%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2010년에는 7.3%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유럽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존 가입을 위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르면,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을 60% 이내로 억제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폴란드의 경우 2009년 말 기준으로 동 비중이 5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 수준 유지

- 폴란드는 체제전환과정에 있었던 1992~2001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IMF 추정)를 기록할 정도로 과도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물가상승률이 크게 진정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9년 중 내수 위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상반기에는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입 식료품 및 연료가격이 상승하여 물가가 불안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통화가치 회복,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5%(2010년 2.3% 전망)를 기록함.

2. 경제 구조·정책

□ 선진 시장경제의 산업구조 형성

- 1990년대 체제전환 이후 농업 및 제조업의 GDP 대비 생산비중이 크게 위축된 반면,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전형적인 선진 시장경제 산업구조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동유럽 최대 경제권).
- 농업부문은 체제전환 이후 정부의 농산물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았고, 석탄, 철강 등의 중공업에 집중화된 폴란드 산업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급진적인 사회변혁 없이 중공업 분야의 점진적인 구조조정으로 농업부문과 같은 타격을 받지 않았음.

<주요 경제구조 지표>

- 산업별 GDP 대비 생산비중('09): 서비스업 67.3%, 제조업 28.1%, 농업 4.6%
- 실업률: 19.6%('04) → 13.9%('06) → 7.1%('08) → 11.0%('09) → 9.4%('10)
- 최대 단일 비제조업 수출비중: 식음료 - 6.5%(IMF,'07)
- 연료 수입비중: 11.4%(세계은행,'08)
- 주요 수출대상국('09): 독일(26.3%), 이탈리아(6.9%), 프랑스(6.8%), 영국(6.4%)
- 주요 수입대상국('09): 독일(27.6%), 러시아(8.5%), 이탈리아(6.4%), 프랑스(5.4%)

□ EU 가입 이후 투자여건 개선이 경제성장 견인

- 2005년 이후 제조업, 광업 및 공공부문의 생산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수출호조 및 자본투자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EU 가입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경제성장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기계, 설비 등 자본재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현저한 상승추세를 보임.

<주요 성장잠재력 지표>

- 제조업 상품수출: 79.6%(세계은행,'08)
- 장기(2000~08) 연평균 경제성장률: 4.4%(OECD,'10)
- 국내 저축률: 18.7%(OECD,'10)

□ 경제펀더멘털 양호

- 폴란드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폴란드 정부의 확대통화정책 시행, 수출 경쟁력 상승, 비교적 건전한 금융부문, 경기부양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4월 15일에는 폴란드 정부가 17.5억 유로에 달하는 유로채권(2010년 만기, 독일 국채 2.306% 기준, 가산금리 363bp 적용) 발행 성공은 폴란드 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특히, IMF는 2009년 5월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를 통해 폴란드에 대해 205억 달러(155억 유로 상당)의 자금지원을 승인함으로써 폴란드의 외환상황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 지속 인하

- 2006년 1월 통화당국(MPC)이 정책금리(reference rate)를 25bp 인하(2005년 3월 이후 5차례에 걸쳐 200bp 인하)하여 4%로 낮추었으나 2007년 4월,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책금리를 25bp 인상(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1년간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함(2008년 5월 현재 정책금리: 5.75%).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폴란드 통화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250bp 인하)하여 정책금리는 2010년 8월 말 3.5% 수준을 유지함.

□ 즈위티화 환율은 동유럽 경제위기로 변동성 확대

- 즈위티화는 2007년 이후 강세를 보이면서 2007년 중 달러대비 즈위티화 환율은 연평균 2.77을 기록하였고 2008년에는 2.41로 더욱 강세를 나타냈으나,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동유럽 경제위기로 인하여 즈위티화는 다시 약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9년 연평균 달러대비 즈위티화 환율은 3.12에서 2010년 들어 더욱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동유럽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낮아진 데 따른 것이며 2010년 8월 말에는 3.1~3.2 수준을 형성함(폴란드 정부는 유로화 도입시기를 2014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9,394	-20,253	-26,909	-7,207	-12,980
경 상 수 지 / GDP	-2.8	-4.8	-5.1	-1.7	-2.8
상 품 수 지	-7,006	-17,057	-25,972	-4,476	-6,920
수 출	117,468	145,337	178,427	139,956	154,786
수 입	124,474	162,394	204,399	144,432	161,706
외 환 보 유 액	46,107	62,720	58,931	73,394	84,671
총 외 채 잔 액	139,033	195,375	218,022	239,168	250,554
총 외 채 잔 액 / GDP	40.7	46.0	41.2	55.5	54.8
D S R	24.3	27.8	15.8	9.3	14.7

자료: IMF.

□ EU 가입 이후 교역 급증

- 1991년 12월, EU와 폴란드간 EU 안정제휴협정(SAA) 체결 이후 폴란드의 EU 회원국과의 교역은 확대되기 시작함.
- 제조상품의 대외무역은 2004년 EU 가입 이전에 이미 무역통제가 철폐된 상태였으며, EU 회원국은 대 폴란드 무역패턴에서도 갑작스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EU 시장에 대한 폴란드 수출실적이 총수출 평균증가율보다 낮은 기록을 보였지만, 낙농제품 등 특정 식품산업은 EU 가입 이후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됨.

□ 경상수지 적자는 관리가능

- 폴란드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구조인데, 2000년대 들어 경상수지 적자는 1990년대에 비해 급속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2007~08년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의 확대(소비 및 투자 수요 증대, 해외수요 위축, 통화 강세 및 임금 상승) 및 외국기업의 투자송금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악화됨.
- 2009년에는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상품수입의 급격한 감소, 경상이전수지 및 소득수지의 개선으로 경상수지는 7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269억 달러)에 비해 대폭 감소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2008년의 5.1%에서 1.7%로 개선됨.
- 2009년 초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차입이 어려워지는 등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폴란드는 외환관리 및 경제운용에서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총수출증가율이 전년 대비 -21%를 기록하면서 수출규모가 크게 위축됨.
-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589억 달러로 수입의 2.7개월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4월 이후 폴란드의 외환금융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호전되면서 2009년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은 수입의 4.8개월분 수준으로 개선됨.

□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FDI 유입 부진

- 1990년대 후반부터 OECD(1996), NATO(1999) 가입과 더불어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1~03년 민주좌파연맹(SLD) 정권의 민영화 추진 지연 및 국제경제 환경 악화로 FDI 유입은 부진하였음.
-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으로 2004년 EU 가입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지속되었음. 2006~08년 폴란드에 대한 FDI 유입실적은 각각 192억 달러(전년 대비 85.3% 증가), 176억 달러(-8.4%), 165억 달러(-6.0%)로 나타남.

- 2009년 FDI 유입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인감소 및 투자계획 축소 등으로 100억 달러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서유럽 경제권의 경기침체로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에 대한 투자유인이 크게 줄어든데다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산업설비에 대한 투자 축소, 기업경영실적 악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외채구조 악화

- 연도별 외채(자본유입) 규모의 변동성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데, 2008년 이전에는 외채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외채구조는 악화되고 있음. 2009년 이후 폴란드의 GDP 및 수출규모가 크게 위축되면서 GDP 및 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의 비중은 더욱 상승하여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됨.
- 총외채잔액/GDP: 41%('08) → 56%('09)
- 총외채잔액/총수출: 97%('08) → 135%('09)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2007년 10월 총선에서 4대 정당 중심의 의석 재편

- 예정보다 2년 앞서 2007년 10월 21일 실시된 폴란드 하원(Sejm)의원 조기총선에서 중도우파 제1야당이었던 시민강령당(PO당)이 최다 득표로 정권이 교체됨. 정당별 득표율은 PO당 45.5%, 법과 정의당(PiS) 32.1%, 민주좌파그룹(LiD) 13.1%(원내진출), 폴란드농민당(PSL) 8.9%, 자위당(SD)과 가족당(LRP)은 5% 미만으로 나타남.
- 보수우파 연정의 우경화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지지 유권자(도시지역 청년층)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으로 분석됨.

○ 총 46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2007년 총선(차기: 2011년 10월)에서 PO당은 209석을 획득하여 PSL당(31석)과의 연정구성으로 과반수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함. 반면, 총선이전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은 166석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

- 총선 투표율은 54%로 1989년 공산정권 붕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2005년 총선 투표율은 민주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40.5%를 기록한 바 있음.

□ 2009년 6월, 집권 여당의 유럽의회 선거 압승

○ 2009년 6월 8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 중도우파인 PO당 25석(44.4%), 제1야당인 PiS당 15석(27.4%) 등으로 집권 여당이 크게 승리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5년 전 유럽의회 선거에서 PO당의 지지율이 24%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경제위기에 불구하고 국민들의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0년 6월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총리와의 갈등 해소

○ 2010년 4월 10일 카틴 숲 학살사건의 70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호 향하던 폴란드 대통령 특별기가 러시아 스몰렌스크 공항 근처에 추락하여 레흐 카진스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폴란드 정부 대표단 89명 및 승무원 8명 전원이 사망함. 폴란드 헌법에 따라 코모로프스키(Bronislaw Komorowski) 하원의장이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임명됨.

○ 대통령(직선제로 선출, 5년 임기, 2회 연임가능) 공석으로 2010년 6월 20일 조기 실시된 대선결과, 7월 4일 결선투표에서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이 55%의 지지를 얻어 32% 지지에 그친 야로슬라브 카진스키 PiS당 총재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됨(2010년 8월 6일 취임).

- 이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PO당 소속으로 대통령과 총리간 갈등이 해소되어 원만한 국정운영과 정치 안정이 기대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회 치안상태, 매우 양호

-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으로 복지혜택의 축소가 불가피한 점 등이 국민들의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정도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 2004년 4월 EU 가입 이후 110만명(인구의 3%)의 폴란드인이 해외에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최근 이민 증가와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도 증대(2006~07년 평균 4%)하면서 실업률은 2005년의 17.7%에서 2007년 9.6%로 낮아졌고, 2008년 말에는 7.3%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됨.
- 폴란드를 비롯하여 2004년 4월 EU에 신규 가입한 9개국(사이프러스 제외)이 2007년 12월 쉥겐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동 조약 가입국간 국경이 개방됨에 따라 EU 회원국간 민간교류 및 사회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

□ 소요/사태 발발가능성 낮아

- 폴란드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하여 테러 위협이 있었지만, 실제 폴란드 내에서의 테러 위협은 미미하며, 주변국가와의 직접적인 무력충돌 위험은 적음.
- 자국내 시위 및 시민 불복종운동은 합법적인 시민활동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는 1980년 8월에 창설된 중도좌익 성향의 자유연대노조(Solidarity trade union)와 같은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됨.

3. 국제관계

□ 대 EU 외교관계 호전

- 투스크 총리는 대 EU 회원국과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등 실리 위주의 외

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유럽 헌법조약(리스본조약)은 2005년 부결된 문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서 2007년 7월부터 정부간회의(IGC)를 통해 조약의 최종안이 연말까지 마련된 후 2008년 중 회원국 비준을 거쳐 2009년 12월 1일 발효되었으며, 폴란드 정부는 2007년 4월에 이미 의회 승인, 대통령 서명으로 리스본조약을 비준한 바 있음.

□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노력

- 미국 일변도의 안보정책에 비판적인 투스크 총리는 과거사 문제로 악화되었던 독일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함.
- 독일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과 대 EU 경제협력을 통해 폴란드는 외교정책을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와의 소원적 관계도 2010년 4월 대통령기 사고 이후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조로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VI.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1	(2010. 9)	B1	(2008. 5)
OECD	2등급	(2010. 1)	2등급	(2009. 1)
S&P	A-	(2007. 3)	BBB+	(2000.5)
Moody's	A2	(2002. 11)	Baa1	(2002.1)
Fitch	A-	(2007.1)	BBB+	(1998.11)
I.C.R.G	35/140	(2010.7)	51/140	(2008.3)
Euromoney	44/186	(2010.3)	42/185	(2008.3)
I.I.	39/178	(2009.9)	39/174	(2007.9)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bank: 전액인수 가능, 한도 적용 없음
- ECGD: 전액 인수가능
- Hermes: 전액 단기인수 가능

3. 외채상환태도

□ 리스케줄링 실적: 파리클럽 조기상환 이행(외채상환태도 양호)

- 폴란드 정부는 1991년, 1994년에 각각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을 통하여 채권단과 채무 리스케줄링에 합의함. 동 합의에 따라 당시 외채의 50%(순현재가치 기준) 정도가 탕감되고, 나머지는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에 각각 2014년, 2024년까지 채무상환이 연장되었음.
- 2005년에는 장기 유로채권 발행으로 파리클럽 대상채무의 절반 정도를 조기상환(buy-back)하기 위하여 일부 채권국과 채무재조정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2006~09년 기일 도래하는 정부채무의 만기연장 등 외채 원리금상환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됨.
- 전반적인 외채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2008~09년 중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5.8%에서 9.3%로 하락하였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도 동 기간 중 109.4%에서 89.7%로 하락하여 단기 외채상환 및 유동성 위험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폴란드의 대 ECA 연체실적 미미

- OECD CRAM('10.5) 자료에 의하면, 폴란드의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비중은 0.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3월 말 기준으로 폴란드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공적수출신용 승인 및 부보 지원분(22억 8,880만 달러) 중에서 연체분은 2,130만 달러로 집계되어 OECD 국가위험 평가에 반영되는 ECA 거래경험 평가 분야는 1등급 수준으로 매우 양호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3,508,775	4,116,764	4,146,741	전자부품, 가정용 및 산업용 전자제품
수 입	301,219	307,102	233,603	수송기계, 기초산업기계, 철강제품

□ 교역현황(2009): 교역총액 43.8억 달러(대 폴란드 수출총액: 41.5억 달러)

-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수출은 199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12.3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 중 대 폴란드 최대 수출국이 되었으나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 수출규모가 급격히 감소함.
- 양국의 교역은 2002년부터 소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수출 9.3% 증가, 수입 56.1% 증가 이후 2004~06년에는 수출입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 EU 가입 이후 평균 수입관세율이 9.6%에서 EU 평균치인 3.6% 수준으로 인하되어 TV부품, 휴대전화기, 선박용 엔진 등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인하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수출실적은 급증세를 보임.
 - 주요 수출품목(2009): 평판디스플레이, 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
 - 주요 수입품목(2009): 자동차부품, 수송기계, 기초산업기계, 철강제품

□ 해외직접투자현황(2010년 6월 말): 122건, 1,230,709천 달러

-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직접투자실적은 2010년 6월 말 누계기준으로 12억 3,071만 달러로 유럽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이는 1990

년대 중반 이후 내수시장이 큰 폴란드에 우리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07~09년 연도별 직접투자 규모는 2007년 1억 1,851만 달러, 2008년 9,293만 달러, 2009년 2,934만 달러로 최근 우리기업의 대 폴란드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및 무역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는 수송기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자통신장비(부품),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V. 종합의견

- 폴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펀더멘털이 비교적 양호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폴란드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은 2009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 특히 2010년 6~7월의 조기대선을 통해 현 집권여당(PO당) 소속의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간 갈등이 해소되어 원만한 국정운영이 기대됨.

부실장 조양현(☎02-3779-6663)

E-mail : yhjo@koreaexim.go.kr